

옛날의 화장실 모습

— 한국 민속촌 화장실 순례기 —



박현연 (이화여자대학교) 박현연

1974년 문을 연 경기도 기흥 소재 한국 민속촌(民俗村)은 관가·민가·반가(班家)등 지방별로 달리하는 우리 조상들의 옛날 생활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기구, 농경기구, 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옛 선조들이 사용하던 화장실도 일부 재현하고 있기에 그 모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1의 모습은 19세기경 남부지방 소농가의 화장실이다. 옛날은 모두가 퍼내는 식의 화장실이었으므로 옆에 세워놓은 “똥 바가지”의 모습이 지금에 와서는 무척 인상적이다.(참고로 이곳에 재현되고 있는 주택들은 모두가 1900년의 모습이므로, 어림잡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150년 전의 생활 모습들이다.)

남부지방 중농가의 화장실(사진 2) 모습은 좀더 세련되고 정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옆에 똥장군, 오줌장군, 똥짚, 그리고 간단한 농기구들이 벽에 걸려있다.

사진 3은 북부지방 민가의 화장실인데, 남부지방 민가의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대문 입구 한 지붕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립된 별채로 집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부지방 반가의 화장실 모습이 사진4에서 보이고 있는데, 화장실 냄새를 처리하기 위하여 뒤편은 빈공간으로 되어있기도 하였으며, 간단한 농기구와 짚을 놓아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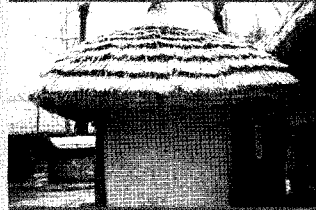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짚을 놓아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오줌이나 빗물 등으로 대변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금씩 지푸라기들을 밑에 깔고 대변을 보았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변 후 밑을 닦는 도구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하였다.

민속촌 안에는 옛 사찰(절)도 옮겨와 재현하고 있었는데, 안내도에 “해우소” 표시가 있어서 기대를 갖고 찾아가보니, 건물의 외부모습(사진 5)은 절간의 화장실 모습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부는 현대식 변기가 놓여져 있었고, 그 관리 또한 전연 되고 있지 않은 상황(사진 6)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찰 해우소에 걸맞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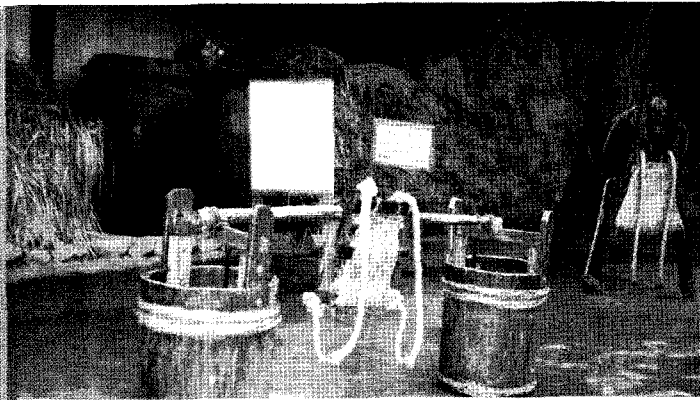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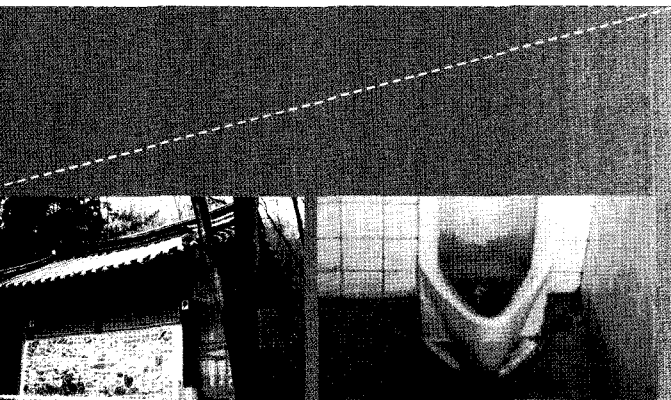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마침 화장실과 관련된 도구들을 전시하고 직접 체



▲ 남부지방 소농가 (사진 1)



▲ 중부지방 반가 화장실



▲ 금련사(사찰) 해우소의 외부모습 (사진 5)

▲ 남자 소변기(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사진 6)

▲ 화장실 관련 체험 도구들 (사진 7)

협할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 (사진 7)을 볼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데...

인분을 나르는 똥장군, 오줌장군, 그리고 오줌싸개가지고 다니던 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만져 보기도 하고, 직접 저 볼 수도 있음) 개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순례의 큰 수확이었다.

참고로 오줌싸개가 등지고 다녔다고 하는 “키”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붙어있었다.(사진 8)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이불에 세계지도를 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머리에는 자기보다 더 큰 키를 눌러쓰고, 손에는 바가지를 들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지요, 여기에서 “키”는 자신의 실수를 덮어 씌우는 의미, 소금은 소독을 의미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민속촌에는 일반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사진 9)이 충분히 있었는데, 외부 형태는 흙벽에 문양 그리고 기와지붕 등이 민속촌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시설이 오래되고 (약30년), 유지관리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에 불편하기도 하고, 고장 난 곳도 있어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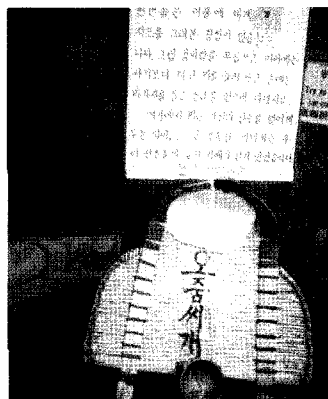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건데 이곳은 내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들리게 되는 대표적인 관광 코스인 만큼, 전시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도 간단한 설명이 붙어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관가 등 일부 건물에는 아예 화장실이 재현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아쉬운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반 입장객을 위한 실제 사용 가능한 화장실은 화장실 위치를 알리는 사이 약간 부족할 느낌이고, 내부에 들어가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이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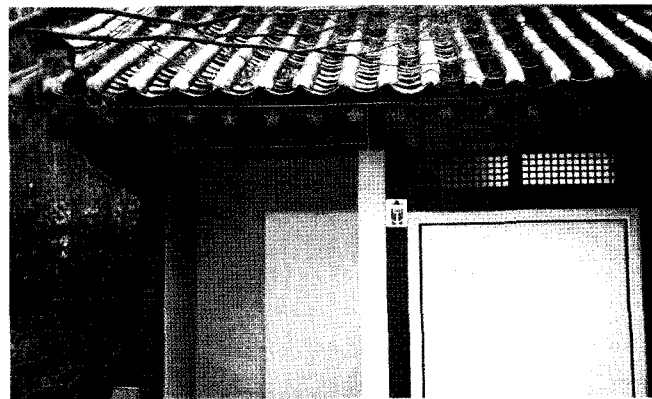
래되어 낡고, 고장 나고, 지저분한 곳이 많았으며 난방도 되지 않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었다.

육십 갈아서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계획되어 있는 금년인 만큼,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가 끝나면 전문관리 업체와 연계하여 처음부터 철저한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오랫동안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았다.

선조들의 얼을 느낄 수 있는 한국 민속촌이 깨끗한 화장실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가보고 싶은 곳으로 칭송 받는 한국 제1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오줌싸개 “키” (사진 8)



▲ 일반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사진 9)